

박찬욱 감독 '헤어질 결심' 오스카 탈락에 美 언론도 "이건 범죄"

'헤어질 결심' 오스카 최종 후보 불발
美 현지 매체 "가장 황당한 결정" 비판
"가장 놀라운 결정" "범죄 가까운 결과"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이 올해 오스카 국제장편영화 부문 최종 후보에 오르지 못하자 미국 현지 매체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라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현지 언론은 '헤어질 결심'의 후보 탈락을 조던 필 감독의 미스터리 호러물 '놈이 단 한 개' 부문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한 것과 함께 거론하며 이를 "당황스러운 결정"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 영화에 술과 학야카데미(The Academy of Motion Picture Arts and Science·AMPAS)는 24일 제95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 국제장편영화 부문 후보로 '서부 전선 이상 없다'(독일) '아르헨티나, 1985'(아르헨티나) '클로즈(벨기에)' 'EO'(폴란드) '더 콰이어트 걸'(아일랜드) 5편을 선정했다. '헤어질 결심'은 지난해 12월 21일 발표된 예비 후보 15편 명단에는 이름을 올렸지만, 이중 5편을 추려 발표하는 최종 후보엔 들지 못했다. '헤어질 결심'은 지난해 5월 칸국제영화제에서 감독상을 받은 이후 출품 오스카 최종 후보에 오를 거라는 평가를 받

았으나 결과는 달랐다.

미국 매체들은 '헤어질 결심'이 최종 후보가 되지 못한 것을 두고 한목소리로 "가장 충격적인 결과"라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AP는 "올해 가장 놀라운 일 중 하나"라고 했고, 연예 매체 배리어어티는 "눈을 크게 뜨게 하는 결과"라는 말로 '헤어질 결심'의 후보 탈락 충격을 표현했다.

현지 언론은 '헤어질 결심'이 최종 후보에서 배제된 것을 영화 '놈이 단 한 개' 부문에서도 후보에 오르지 못한 것, '우먼 킹'에서 인생 최고 연기를 펼쳤다는 평가를 받는 바이올라 데이비스를 여우주연상 후보에서 탈락시킨 것과 함께 올해 오스카의 가장 놀라운 결정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들은 '놈'은 최소한 음향·촬영 부문에선 후보에 올랐어야 한다고 했고, 바이올라 데이비스가 후보에 오르지 못한 것을 두고는 "아카데미의 괴상한 시각"이라고 혹평했다. 그리고 '헤어질 결심'의 탈락에 대해서는 "아카데미가 '헤어질 결심'과 헤어질 결심을 했다" "범죄에 가까운 결정" 등의 강한 표현을 써가며 평가절하

했다.

'헤어질 결심'은 박 감독이 2016년 '아가씨' 이후 6년만에 내놓은 신작이다. 한 중년 남성이 산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건을 수사하는 형사 '해준'과 죽은 남자의 아내 '서래'의 로맨스를 그렸다. 배우 박해일이 해준을, 탕웨이가 서래를 연기했다. 이 작품은 지난해 5월 칸국제영화제에서 감독상을 받으며 전세계 관객의 주목을 받았다. 영화제 상영 당시 관객과 평단으로부터 한목소리로 "결작"이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극찬 받았다. 국내에선 지난해 6월 말 개봉해 189만명이 봤다.

'헤어질 결심'은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선 최종 후보가 되지 못했지만, 다음 달 19일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선 감독·비영어영화 2개 부문에서 후보 지명됐다. 수상에는 실패했지만, 앞서 열린 골든글로브·크리틱스초이스 시상식에서도 최종 후보에 올랐다.

한편 올해 오스카 최다 후보 지명작은 대니얼 칸·대니얼 슈나이더 감독의 '에브리씽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였다. 이 작품은 작품·감독·각본·여우주연·여우조연(2명)·남우조연·편집·음악·주제가·의상 등 10개 부문에서 11차례 이름을 올렸다. 마틴 맥도나 감독의 '이니세린의 벤치'와 에드바르트 베르거 감독의 '서부 전선 이상 없다'는 각 9개 부문 후보에 선정돼 뒤를 이었다.

올해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은 오는 3월 12



미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돌비 극장에서 열린다.

방탄소년단, 전원 솔로 빌보드 '핫100' 진입...뉴진스 2번째 진출

빅뱅 태양·BTS 지민 협업곡 '바이브', 76위



'빅뱅(BIGBANG)' '방탄소년단'(BTS) '뉴진스(New Jeans)' 등 K팝 2·3·4세대 그룹들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100'에서 나란히 자체 신기록을 썼다.

24일(현지시간) 빌보드 트위터 등에 따르면, K팝 2세대 대표 보이그룹 빅뱅 멤버 태양(35·동영배)과 K팝 3세대 대표 보이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지민(28·박지민)이 협업곡 '바이브(VIBE)'는 28일 자 '핫100' 차트에 76위로 데뷔했다.

태양이 '핫100'에 진입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빅뱅 팀오로나 빅뱅 멤버들 중에서도 처음이다.

앞서 지민은 방탄소년단이 지난 2020년 2월 발매한 정규 4집 '맵 오브 더 솔 : 7(Map of the Soul: 7)'에 실린 솔로곡 '필터(Filter)'로 해당 차트에서 87위를 차지한 적이 있다. 방탄소년단 팀으로서의 여러 번 이 차트에 들어왔다. 하지만 솔로 자적으로 해당 차트에 들어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방탄소년단 멤버 일곱명 전원일 솔로로 '핫100'에 진입했다.

제이홉(J-Hope)은 미국 가수 겸 배우 베키 지(Becky G)와 협업한 '치킨 누들 수프(Chicken Noodle Soup)'로 '핫100'에서 81위, '잭 인 더 박스' 더블 타이틀곡이자 선공개곡인 '모어(MORE)'로 82위, '방화'(Arson)'로 96위를 차지했다.

슈가(Agust D)는 'D-2'의 타이틀곡 '대취타(Daechwita)'로 76위, 피쳐링으로 참여한 고(故) 미국 래퍼 주스 월드(Juice Wrld)의 앨범 '파이팅 데몬스(Fighting Demons)' 수록곡 '걸 오브 마이 드림스'로 29위, '강남스타일'의 힌류스타 사이(PSY)와 협업한 '댓 댓(That That)'으로 80위에 올랐다.

뷔는 SBS TV 드라마 '그 해 우리는' OST '크리스마스 트리(Christmas Tree)'로 79위를 차지했다. 정국은 하이브 오리지널 웹툰 OST '스

테이 얼라이브(Stay Alive)'로 95위, 미국 싱어 송라이터 겸 프로듀서 찰리 푸스와 협업한 '레프트 앤 라이트(Left & Right)'로 22위에 올랐다. 역시 '맵 오브 더 솔 : 7'에 실렸던 정국의 솔로곡 '시차(My Time)'가 84위에 오른 적 있다. 진(JIN)은 첫 공식 솔로 싱글로 브릿팝 밴드 '폴드플레이'와 협업한 '디 에스트로넛(The Astronaut)'으로 51위를 차지했다.

RM은 지난달 발매한 첫 공식 솔로 앨범 '인디고(Indigo)'의 타이틀곡으로, 밴드 '체리필터' 보컬 조유진이 피쳐링한 '들꽃놀이'는 83위를 차지했다.

앞서 '바이브'는 발매 즉시 글로벌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 아이튠즈의 월드와이드 송 차트 1위를 차지하는 등 전 세계 차트 상위권 진입을 예고했다. 미국 빌보드와 더불어 세계 양대 팝 차트로 통하는 영국(UK) 오픈셜 차트 최근(20~26일) 싱글 톱100 차트에 96위로 데뷔하기도 했다.

'바이브'는 태양이 소속사를 더블랙레이블로 옮겨 처음 발표한 곡인데 기분 좋은 출발을 하게 됐다. 지민은 2월에 첫 솔로 음반을 내놓는다.

이를 앞두고 제대로 예열을 하게 됐다. 신드롬 걸그룹 '뉴진스(New Jeans)'는 '핫 100'에 데뷔한 지 일주일 만에 다른 노래로 해당 차트에 또 진입했다.

지난 2일 발매한 첫 싱글 'OMG'의 동명 타이틀곡 'OMG'가 28일 자 '핫 100'에 91위로 진입했다. 지난주 96위로 데뷔한 'OMG'의 선공개곡 '디토'에 이어 두 번째 차트 진입이다. 뉴진스의 '핫100' 자체 최고 기록이기도 하다.

특히 뉴진스는 '디토'로 데뷔 6개월 만에 '핫 100'에 진입해 이 차트에 역사상 가장 빨리 진입한 K팝 그룹이 된 직후 해당 차트에 가장 빨리 2곡 이상을 올린 K팝 가수도 됐다.

레드벨벳, 미니 '버스테이'로 첫 밀리언셀러



그들 레드벨벳(Red Velvet)이 첫 번째 밀리언셀러 작품을 내놓았다.

25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레드벨벳이 지난해 11월 28일 발매한 미니앨범 '더 리브 페스티벌 2022 - 버스테이(The ReVe Festival 2022 - Birthday)'가 지난 20일 기준 총 102만9463장이 판매되며 밀리언셀러로 등극했다.

국내 음반 판매량 조사회사 씨클라트 기준 지금까지 걸그룹 중 밀리언셀러 음반을 내놓

은 팀은 블랙핑크, 에스파, 아이브, 트와이스, 있지 등이다.

특히 레드벨벳은 이번 앨범으로 선주문량 자체 최고 수량 71만2187장(작년 11월 27일 기준)을 기록하는 등 '커리어 하이'를 이어왔다. 특히 케이팝 모양의 음반 케이스 등으로 주목 받았다.

'더 리브 페스티벌 2022 - 버스테이'와 시리즈 전작인 '더 리브 페스티벌 2022 - Feel My Rhythm'은 'K팝 클래식 세계관'이 무엇인지 증명하며 호평 받았다.

'더 리브 페스티벌 2022 - 버스테이'의 국내 음원차트 성적도 좋았다. 국내 음원 플랫폼 1위는 물론, 아이튠즈 톱 앨범 차트 전 세계 47개 지역 1위, 월드와이드 아이튠즈 앨범 차트 1위, 중국 QQ뮤직 디지털 앨범 차트 및 뮤직비디오 차트 글로벌·한국 부문 1위 등에 올랐다.

MSG워너비, '지금 고백합니다' 발매 확정

MSG워너비 M.O.M(이하 M.O.M)이 1년 만에 다시 뭉친다.

MSG워너비는 오는 2월 11일 신곡 '지금 고백합니다' 발매를 확정하고 1년 만에 돌아온다.

'지금 고백합니다'는 지난해 2월 발매한 디지털 싱글 '듣고 싶을까' 이후 약 1년 만에 다시 뭉쳐 선보이는 신곡이다. 강창모(KCM)가 앨범 프로듀싱에 참여했다.

M.O.M은 지난 2021년 MBC 예능 프로그램 '놀면 뭐하니?'를 통해 결성한 그룹이다. 프로그램을 통해 발매한 '바라만 본다'에 이어 지난해 발매한 '듣고 싶을까'는 지니, 빅스 등 국내 음원 차트 1위에 올랐다.



MSG워너비의 신곡 '지금 고백합니다'에 대한 정보는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어, 이게 되네"...'정이' 넷플릭스 공식 시청 시간 1위

1930만 시간 비영어 영화 부문

연상호 감독의 새 영화 '정이'가 넷플릭스 공식 시청 시간 순위에서 1위에 올랐다.

'정이'는 1월 16~22일 1930만 시간을 기록해 넷플릭스 비영어 영화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

'정이'는 온라인 스트리밍 플랫폼(OTT) 시청 시간을 분석하는 다른 사이트에서도 전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다. 플렉스패트롤(FlixPatrol)에 따르면, '정이'는

21일 공개된지 하루만에 1위에 올라 24일까지 나흘 연속 정상에 올랐다(2위 '우리집 개를 찾습니다'). '정이'는 넷플릭스가 서비스되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 영화 부문 5위권 내에 자리하고 있다.

SF영화 '정이'는 2016년 영화 '부산행'으로 1000만 관객을 달성한 연상호 감독의 새 작품이다. 급격한 기후 변화로 폐허가 된 지구를 배경으로 전설의 용병 '정이'가 인공지능 로봇으로 다시 태어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배우 김현주가 정이를 연기했고, 강수연·류경수 등이 출연했다.

임창정, 다음달 8일 미니앨범 '멍청이' 발매

가수 임창정이 컴백을 예고했다.

25일 소속사 에스아이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임창정은 오는 2월 8일 오후 6시 세 번째 미니앨범 '멍청이'를 발매한다. 이번 앨범은 2021년 11월 '별거 없던 그 하루'로 발매 이후 1년 3개월 만이다.

임창정은 오는 26일 앨범 예약판매를 시작으로 27일엔 트랙리스트를, 28일에는 무도 포

토를 공개한다. 이어 31일부터 콘셉트 포토와 리릭 포토, 뮤직비디오 티저, 스토일러 영상, 스페셜 영상 등을 순차적으로 선보인다.

또 임창정은 오는 26일 공식 팬클럽, 30일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쇼케이스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오프라인 쇼케이스는 앨범 발매일인 2월 8일 열린다.